

# Sermon of the Week: The Way Back to the Father

Passage: 1 Peter 2:21-25 (ESV)

Date: October 5, 2025

Pastor: Dong Suk Chung

Human beings were created in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to reveal His glory and reflect His nature. We were made for fellowship with God. But when man ate the fruit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and sought to become like God on his own, that very place became the source of curse and sin. Every problem in the universe—great or small—originates from that moment. Yet God sent His only Son, Jesus Christ, into the world to complete a new creation through the cross. Therefore, we must remember this truth: no matter what the problem is, every solution ultimately lies in returning to the redemptive cross.

Redemption means returning to the original place from which humanity departed. Humanity was created to live with God, but when man left that place and began living as his own master, life became a curse. Yet God sent His only Son, Jesus, who already solved the problem through the cross. Therefore, whatever problem we face, when we return to the redemptive cross, it will be resolved. Like the parable of the prodigal son, even if we have turned away from God, we must return to the Father who does not condemn us and welcomes us back to our original place.

When the prodigal son came home, his father said, "This my son was dead, and is alive again; he was lost, and is found" [Luke 15:24], and he threw a feast. When did the son die and come back to

life? In this parable, the prodigal son foreshadows the Son of God, Jesus Christ. The Son left the Father's presence, came into the world, became sin for us, died on the cross, and rose again to return to the Father. The reason Christ came to this defiled world was to become the prodigal son—to become sin—on our behalf and to die and rise with us.

That the Son became the prodigal son represents our union with Christ. When Jesus became sin, we were included in Him. In Him, we died and rose again. Through His death and resurrection, we were able to return to the Father. To be redeemed means that we who had left God have now been restored to the place He originally called us to. It means we are now united with Him.

To be united with Christ means that when we believe in His death and resurrection, our old life ends, and we are born again with the very life of God. This is our true position, our blessing, and our dignity as children of God. When we hold firmly to this faith, every problem loses its power, and we experience victorious resolution in Christ.

The same truth applies to marriage. The union between Christ and His people is the true reality of marriage, while the union between man and woman is only its shadow. A couple who knows that their true husband is Jesus will show that truth by denying themselves on the cross. When conflict arises between husband and wife, instead of trying to fix it by human effort, if one denies the self and dies on the cross, Christ within will be revealed. Then the Lord will work—bringing peace,

gentleness, wisdom, and the abundant life of Jesus into the relationship. Then, the couple begins to experience the presence and work of Christ in their midst.

As Jesus said,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John 15:5]. When problems come, we must not look to people or circumstances but to Jesus alone. As we remain in Him and He in us, His life flows through us and every problem will be resolved. Whether it's between husband and wife, or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we should not try to fix things ourselves—for human effort cannot fix others. When we surrender and die to ourselves, the Lord intervenes. We must give the Holy Spirit time and space to work, because every problem belongs to the Lord, not to us.

The place God has called us to is in Christ Jesus. When we return to that place, we experience the grace of God who adds all things to us. We were not created to strive and labor, but to share in God's rest. Satan, through the fruit of good and evil, made us labor again, but Jesus, through the redemption of the cross, gave us eternal rest. When we truly die with Him on the cross, we can rest even amidst fearful and difficult circumstances.

The thought that "I must strive and live a holy life for the Word to become mine" is a lie. The Lord has already died and risen. All we need to do is receive His Word by faith. As His Word becomes the reality in us, may we live in praise and rest even in the midst of this complex world. And may the blessing of His presence and the peace of His life overflow among us.



# 심니소식

## 나성교회



## 심성교회

10월 19일, 2025년

NASUNGCHURCH.NET

77 호

###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1-25절

날짜: 10월 5일, 2025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을 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귀하게 만들어진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한 그 자리, 바로 그것이 저주의 자리이자 죄입니다. 우주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 새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문제든지 모든 문제의 해결은 결국 '구속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속이란, 사람이 떠났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존재가 그 위치를 떠나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모든 삶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로 이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구속의 십자가로 돌아가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처럼, 하나님을 떠났더라도 우리를 책망치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사람의 본래 위치로 돌아와야 합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눅 15:24)"라고 말하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탕자가 언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니까? 이 비유에서 탕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에 오셔서 죄인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더러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즉 죄인이 되시기 위해서이며,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가 탕자가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아들 예수가 죄인이 되셨을 때, 그 예수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속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그분이 부르신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순간, 옛 생명은 끝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위치이자 축복이며 사람의 참된 격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믿음의 자리를 확고히 지키면 모든 문제가 물러가고, 예수 안에서 해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람의 연합이 결혼의 실제이며 사람과 사람의 연합은 참된 연합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제가 있는 부부, 즉 자신의 참된 남편이 예수임을 아는 부부는 자신을 십자가에 버림으로써 관계 속에서도 그 실재를 나타냅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평강과 양보, 지혜, 그리고 예수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역사하시며, 부부 사이에 임재하셔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

지라(요 15:5)" 하신 말씀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부부나 부모, 자식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고치려 해서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죽을 때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시간과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 위치로 돌아올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선악과로 우리를 다시 일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쉼을 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면, 어떤 환경과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말씀이 내 것이 된다'는 생각은 거짓된 생각입니다. 주님이 이미 죽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어떤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말씀이 실재가 되어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안식 가운데 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net>
- [information@nasungchurch.net](mailto:information@nasungchurch.net)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삼성교회 연락처**

- +82 02-2293-4421
- <http://samsungch.or.kr>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지하 1,2층)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0분	3층 예배실

# 중보기도

##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포항 등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 올해 11월에 있을 요한계시록 집회를 위해

##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담임목사님의 한국의 모든 일정과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
- 이성희 자매 (1여성교회) - 교회에서 넘어져 팔의 접골 부상을 입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세리토스 구역)
- 심순근 권사 (모세회) - 폐 염증이 심하고 호흡이 어려우신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 송제인 집사 (1여성교회) - 항암치료와 수술, 회복과 병원 비용이 보험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를 위해
- 김상준 형제 (4,5 남선교회) - 위암으로 항암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이시용 장로 (모세회) - 담석수술과 패혈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회복을 위해
- 한아림 자매 (청년회) -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은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서인숙 권사 (한나선교회) -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 김묘자 권사 (모세회) - 천식이 재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 김풀리 자매 (3여성교회) -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이수영 장로 (여호수아회) - 무릎 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회복과 건강을 위해
- 김영자 집사 (모세회) -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 최지민 자매 (1여성교회) - 유방암과 림프 전이 및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해

##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김옥경 집사 (82세) -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현숙 집사 (61세) -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심한 귀 통증이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신자 집사 - 자녀들 (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권오중 집사 (47세) -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장현주 집사 - 신장 기능 저하(40% 정도)와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신장 약을 먹을 때 어지럽고 힘이 듭니다. 신장 기능과 당뇨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영희 자매 (60세, 도봉구역) - 궤양성대장염으로 20년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연희 집사 - 허리 디스크 탈출과 협착증으로 수술하였습니다. 마비되었던 부분이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조희순 집사 - 오른쪽 어깨수술 (회전근개파열) 회복과 재활을 위해, 왼쪽 어깨와 팔목 통증 치유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선교소식

지난 8월, EM 소속의 김모니카 자매와 저는(오성희) 나성교회에서 후원하는 TASSEL Cambodia 선교지에 다녀왔습니다. 선교지는 수도 푸놈펜에서 약 6시간 떨어진 바탐방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록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조지(Joji) 선교사님을 직접 만나 뵙고 TASSEL Cambodia의 여러 사역(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학생들의 가정을 방문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쌀과 약품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 2년 전 시작된 노인센터를 방문해 그곳에 참석하시는 노인분들도 만나 뵙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12년 전, 조지 선교사님이 처음 영어 학원을 시작하셨을 때는 선교사님과 현지 교사 한 명, 그리고 60명의 학생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42명의 현지 교사와 3,500명의 학생들이 TASSEL을 통해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더욱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 21명의 교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21명의 선생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이어질 것을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지 선교사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영어를 가르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그치지 않고, 지역 교회를 후원함으로써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가 그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을지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현지 교회 이름은 Moriah 교회로, 몇 년 전 한국의 한 감리교회가 세웠지만 1년 후원을 끝으로 연락이 끊기면서 지금은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지의 Maren 목사님께서 홀로 사역을 이어가고 계시고, 자원봉사로 찬양을 돕는 젊은 청년 Ravorn과 약 20여 명의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이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형편상 Maren 목사님께 사례비를 드릴 수 없어, 목사님은 생계를 위해 특특이(삼륜차)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조지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가 Moriah 교회를 후원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가 선교지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주간소식

- 담임 목사님의 한국의 모든 일정과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교회에서 11월 중순 (11/19 - 11/23)에 있을 계시록 말씀 사경회를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기간동안 교통 이동 및 교회 주차 안내와 또 손님들의 숙박 제공 등을 도와주실 분들은 사경회 집회 준비 위원장이신 김학철 목사님과 총무인 홍성훈 형제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미국 타주에서 집회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나성교회 사무실로 전화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교우들의 많은 협조와 찬조를 부탁드립니다.
- 오늘 2부 예배 후 각 남녀 선교회 월례회 모임이 있습니다.
- 오늘 예배 후 식사는 최연정 자매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 나성교회 삼나소식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해서 나성교회 삼나소식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